

2019 제38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 일반공모전 상세요강

v.20190422

1. 취지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건축 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하여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창설하면서 범 건축인이 참여하는 뜻 있는 국가적 행사가 될 것을 지향하였다. 이에 지난 36년 동안 국내 건축공모전으로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반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국제 공모전으로 개최하였다. 이제 국내를 넘어 전세계에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건축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자한다.

2. 주제

공유 공간 (共有空間)

Space for Commonality

[별첨1. 주제 설명]

3. 공모 조직

3.1. 주최/주관: (사)한국건축가협회

3.2.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4. 응모 자격

4.1.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적 상관없음)

4.2. 1인 1작품, 개인지원만 가능

5. 상세일정

내 용	일 정 (2019년)	비고
주제 공고	4월 30일(화)	
공고 및 참가등록	4월 30일(화) 10시 ~7월 4일(목) 18시	
1차 작품 접수	~ 7월 4일(목) 18시	우편 및 방문 접수
1차 심사	7월 12일(금)	7월 둘째 주 예정
2차 작품 접수 (2차 등록자에 한함)	8월 20일(화)	8월 넷째 주 예정
2,3차 심사 및 최종 결과발표	8월 22일(목)~26일(월)	8월 넷째 ~ 다섯째 주 예정
시상식 및 전시회	9월 3주	대한민국건축문화제(예정)

※ 상기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6. 심사

6.1.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6.1.1. 건축전문가 7인

6.2. 심사기준(공통)

6.2.1 심사위원회는 1명의 심사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사방법 및 당선작에 대하여 검토,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지원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2.2. 프로그램을 통한 건축완성 능력

6.2.3. 서론(issue)부터 해답(solution)까지의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과정

6.2.4. 주제 관련 적합성 및 독창성

6.2.5. 심사위원들은 최종평가 후 심사평을 제출한다.

6.3. 심사위원(가나다 순)

성명	소속	비고
공순구	홍익대학교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박찬석	토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장민	인제대학교	
최춘용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전보림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남정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명-가나다 순

※심사위원에 대한 구체적 소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심사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선정자만이 다음 단계 심사에 참여 가능함.

1차 심사: 1차 제출서류 심사(총 지원자의 10% 내외 선발)

2차 심사: 2차 제출품 심사를 통해 입선 및 입상후보자 선정

3차 심사: 공개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입상자 선정

7. 참가비

7.1. 1차 작품등록비: 5만원(KRW)

7.2. 주의사항: 결제 시 지원자 본인 명의의 카드 및 통장으로 결제 요청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8. 시상

- 8.1. 대상 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원(KRW)
- 8.2. 우수상 4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200만원(KRW)
- 8.3. 특선 약간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100만원(KRW)
- 8.4. 입선 다수: 상장 및 상패
- 8.5. 상금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세법에 따름

9. 참가등록

9.1. 참가등록

지원자는 참가등록 기간(4월30일(화) ~ 7월4일(목) 18시)안에 웹사이트를 통해 참가등록 및 1차 등록비를 납부해야 함

웹사이트 : www.kia.or.kr > 참여마당 > 일반공모전 > 접수

- 9.2. PIN번호: 익명성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지원자는 참가 등록 시, PIN 번호(알파벳 하나와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지정해야 하며, 등록 후 모든 공지는 PIN 번호로 사용됨.

10. 1차 작품 제출서류(참가등록 완료자에 한함)

10.1. 패널 인쇄물 A3 2매(좌상철 스테이플 처리/후면 폼보드 우드락 부착 금지)

* 패널 우측상단에 PIN번호 표기

가로(4cm)×세로(1cm) 표 안에 흰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기입

* 텍스트 폰트는 최소 9포인트 이상.

* 패널 포함사항

내용: 가로, 세로 구분 없이 그림, 사진, 스케치, 텍스트 등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념위주로 구성한다.(개념위주란 최종결과물이 아닌, 문제제기와 앞으로 풀어갈 방향성 등을 건축적으로 제시함)

10.2. 디지털 파일 자료 제출(USB 1매)

패널 이미지 디지털 파일(JPEG/300dpi 이상)을 USB 또는 CD 저장해서 제출
파일명: PIN번호_001, PIN번호_002

(ex: A1234_001, A1234_002)

※주의사항: 파일로 제출하는 이미지는 PIN번호 삽입 금지

10.3. 제출 방법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인정)

제출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건축가협회 일반공모전 담당자 앞

11. 2차 작품 제출품 (1차 심사 선정자에 한함)

11.1. 2차 작품 제출 대상자는 건축 모델 및 패널(인쇄물), 디지털 파일을 제출함.

모델: 600*600*600mm 체적안에 자유롭게 구성(단, 자립할 수 있는 형태)

단, 위의 사이즈는 최대 사이즈이며 지원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그 체적 안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표현하여 제작함.

작품에 사이즈는 심사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표현 가능

패널(인쇄물) : 규격600*1,200mm 1매

단면 인쇄물(세로방향), 패널은 PET지로 인쇄,

족자형 배너로 제작 후 제출

※ 제출물 패널(인쇄물)의 규격 및 제작형태는 추후 전시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시 2차 작품 제출물 관련 공지 예정.

11.2. 디지털 파일 자료 제출(USB 또는 CD 1매)

패널 이미지 디지털 파일(JPEG/300dpi 이상)을 USB 또는 CD에 저장해서 제출

파일명: PIN번호(ex: A1234)

※주의사항: 파일로 제출하는 이미지는 PIN번호 삽입 금지

11.3. 제출 방법

방문 접수

제출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건축가협회

11.4. 권장사항

- 2차 작품은 성인 2인이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제작 바라며, 이동 및 보관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완성도 있게 제작할 것을 권장함.

12. 3차 공개 프레젠테이션

12.1. 대상: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

12.2. 발표시간: 발표5분, 질의응답 5분

12.3. 발표형식: 파워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5분 구성(음향, 동영상 가능)

12.4. 파일제출: 공개평가 1일 전까지 제출, 심사 당일 변경 금지

12.5. 발표언어: 영어 또는 한국어

12.6. 발표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13. 공식언어 및 단위

13.1. 공식 언어: 한국어와 영어

13.2. 계량 단위: 미터법(Metric System)

14. 기타규정

- 14.1. 지원자는 공모전에 참가등록을 함으로서 이 규정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지원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14.2. 1차 제출 작품은 반출되지 않음.
- 14.3. 1차 작품과 2차 작품의 작품제목 및 개념이 동일해야함.
- 14.4. 등록확인 및 지원자의 인적사항, 작품제목(ID 및 PIN제외)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며, 수정은 등록 기간 중에만 가능함.
- 14.5. 지원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공모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타 공모전에 지원했던 작품, 타인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공모전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14.6. 지원자는 타인의 저작물을(자료)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별도의 출처 없이 무단 사용 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14.7. 제출 작품에는 지원자의 PIN 번호 이외에는, 지원자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표현(학교, 이름 등)을 할 수 없음.
- 14.8. 작품의 저작권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작품집, CD제작 및 기타 홍보 등에 지원자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주최와 후원사에게 귀속됨.
- 14.9. 작품집 제작 및 전시를 위해 본 협회에서 입상(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응해야 함
- 14.10. 질의/응답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가능함.(전화문의 불가)
- 14.11.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 및 추가사항들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시로 게시되며, 변경사항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14.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당 해년도 건축대전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름.

[별첨] 주제설명

공유공간 (共有空間) Space for Commonality

넓은 의미에서 공유는 단순히 소유 혹은 직접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시선, 감각, 경험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뿐만 아니라 두 명 이상 복수의 이용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공간에서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의 방법, 소유 형태, 이용자, 다른 공간과의 접속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전적 의미는 1. sharing 2. common 3. public 으로 공유를 정의하고 있다. 자연과 도시, 길과 광장, 주거도 공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건축의 관심이었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 시간, 프로그램의 공유로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공유오피스-WeWork, 공유주거-share house (영역적 공유), 공유주거-Airbnb (시간적 공유) 등의 재편성된 공유공간들이 존재한다.

공유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공용 • 공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에 공동공간, 공용공간, 공유공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며, 해당 공간에 대한 범위와 분류에 있어서도 의미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Altman(1975)은 공간의 차원을 세포막에 비유해 영역을 나누어 보았으며, 각 영역의 경계적인 성격에 따라 형성되는 영역성, 독자성, 안전성과 같은 특성에 따라 분류된 공간의 구조에서 공유공간은 대개 개인적인 공간과 공공의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매개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어 오기 시작했다.

[공동주택 공유공간 연구의 흐름에 관한 연구 - 이학성 안소미 이연숙]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유공간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중간에서 나타나는 공간을 말한다. 사적공간(private space)은 개인공간으로 오랜 시간동안 점유 되는 공간이며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공적공간(public space)은 외부인의 접근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일시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사적공간, 공적공간을 연결해주는 공유공간은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뜻한다. 공유(share)는 ‘분배, 나누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시 설계 개념을 뜻하는 공유공간(shared space)은 1991년에 팀 파로

(Tim Pharoah) 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또한, 공유공간을(common space)로 정의하고 있다.

[도심형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유공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조용희
임종엽]

“공유 공간 논의의 핵심은 다양한 사용자들의 개별적 요구에 각각 응답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공간 안에 서로 다른 행위를 함께 담을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공간을 공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간을 점유하는 여러 사람들의 사용이라는 점에 충실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만약 공유공간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분리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다른 기능들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적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때, 공공 공간은 더 이상 공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디자인과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시설이나 영역이 되어버린다.” [Keuning instituut & Senza Communicatie. Shared Space: Room for Everyone, Groningen: 2005.p.12]

건축가 신승수는 그의 저서 `공공을 그리다`에서 공유 공간(shared space)이란 “여러 이질적 성격들이 중첩된 공간이라기보다는 행위들이 중첩된 공간이며, 따라서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중첩이라는 단어는 옆으로 겹치는 병치(juxtaposition)와 위아래로 겹치는 중첩(superposition)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서로 다른 관심에서 비롯된 이질적 공간과 장소들이 병치, 혹은 중첩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엮이는 것이 헤테로토피아적 공간 구성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유공간이란 다양한 행위와 공간이 중첩되는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집합 공간으로 정의된다.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공유경제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식의 변화는 `공유가치와 소유가치`의 역전현상을 보여주며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한다.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소유개념 변화가 일상적인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또 다른 질문의 하나일 수 있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방향의 제시가 때로는 창조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려하여 단편적인 사례들은 언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단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건축 도시적 정의(定義)를 통한 해법으로서의 공유공간을 기대해 본다.